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 재외동포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 7. 19.(토) 24:00(한국시간 기준)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검증 기간(의견 접수 기간) : 2025. 7. 4.(금) ~ 7. 19.(토) 24:00(한국시간 기준)

○ 의견 제출처: 이메일(okapolicy@korea.kr)

※ 아래 명단은 최종 포상 수상자 명단이 아니며, 이번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상훈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후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및 의견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과 연락처 미기재 시 제출하신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 게시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1	2.20 클럽	단체	2007년 창립 이래 다양한 연령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식료품 지원, 봉사 교육, 한글 메시지 전달, 지역 학교와의 협력, 걷기대회 및 문화행사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더불어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 제고와 연대 강화에 기여함.
2	강병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37년간 포르투갈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으로서 교육과정 개선, 장학제도 도입, 한인 정체성 교육에 힘썼고, 리스본 빈민가와 아프리카 이주민 밀집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로 한국과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3	강성은	재리투아니아한인회 회장	2015년부터 재리투아니아 한인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홍보, 한-리투아니아 고위인사 교류 증진, 동포사회 화합 등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문화 홍보, 우리 정부 지원, 동포사회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함.
4	강성태	전 선양한국인(상)회 회장	선양한국인회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동포 권익 보호, 문화·복지·교육·경제 네트워크 구축, 민간외교와 기부를 통한 한중 교류 및 재외동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
5	강원호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1991년 미국 이민 후 워싱턴에 장애인 봉사 단체 밀알을 창립하여 봉사에 헌신해 왔으며 미국 외에 과테말라,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에 밀알을 설립해 동포 장애인뿐만 아니라 타민족 장애인을 지원하여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6	강희옥	재일민단 훗카이도 지방본부 구시로지부 고문	구시로 민단지부에서 45년간 단장·감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정 안정화, 한글학교 운영, 위령제·재난 대응, 한일 문화교류, 후세 교육과 한국어 강좌 개설 등을 통해 동포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 통합, 민간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7	고광희	유럽한인경제인총연합회 회장	2002년부터 한글학교 이사장, 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 유럽한인경제인연합회장, 세계한상대회 공동 대회장, 민주평통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유럽 한인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한인 2·3 세대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한인 경제인들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
8	고연재	중국호남성한인회 회장	호남성 장사 한인회 회장,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중국 동포사회의 화합 및 권익보호, 코로나19 극복 등에 공헌하였으며,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기업 지원,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9	권홍래	한국 브라질 장학회 고문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외한국학교 및 장학회를 설립, 27년여간 차세대 인재양성의 선순환 플랫폼 구축 및 한류 확산과 공공외교의 기반이 되는 한인타운 환경 조성에 기여함.
10	김계일	재일민단 이바라키현 지방본부 상임고문	1984년 민단청년회 회장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민단 청년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독려하였으며, 한일 가교 역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11	김만중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괄수석부회장	포트워스 한인회장, 한인학교 이사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괄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지원, 한국문화 전파, 통일교육, FTA·의료정보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함.
12	김명규	캐나다한국일보 발행인	한국일보 토론토지국 개설 및 캐나다뉴스 창간 등 5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한인사회의 정치·교육·문화·복지 등에서 많은 기여를 하며 다양한 자선 모금 활동 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13	김민규	청도한국인(상)회 성양구지회 사무총장	20년간 청도한인회에서 총무, 사무총장 등으로 봉사하며 방역물품 지원, 전세기 섭외, 민원 대응, 청소년 통일교육 및 한식조리경연대회 기획, 한국학교 지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결속과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함.
14	김성훈	베네수엘라 체육회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	베네수엘라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실력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려 두 차례 올림픽 메달 수상을 포함, 수많은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현지 태권도 전국 단위 보급 확대 및 활성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우호 관계 구축에 기여함.
15	김순복	전 독일 하노버 한인회 회장	하노버 한인회장과 동포단체 임원으로서 세대 간 소통, 한글학교와 문화행사 지원, 국제결혼여성·노인 복지 활동, 한국문화 홍보와 재난 구호 등 다방면의 공동체 통합 활동을 통해 독일 내 한인 정체성 강화와 한국 위상 제고에 기여함.
16	김영석	3플러스 로지스틱스 그룹 회장	미네소타 한국어 마을과 한인이민사 보존 사업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한미 간 가교 역할 및 정체성 교육에 헌신했으며, 다양한 소외 계층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부를 통해 주류사회와 다문화 커뮤니티에도 공헌하는 등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함.
17	김영선	몽골 울란바타르 선교사자녀학교 교사	몽골 유일 한국학교 UBMK에서 국어교사 및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한국어·역사 교육과 진로지도에 힘쓰고, 현지 대학·학교 및 한인회 행사 참여를 통해 몽골 내 한국문화 확산과 한인사회 결속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18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고려인 동포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려인의 권익 보호와 재외 동포 인식 개선 활동 및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사회통합에 기여함.
19	김왕기	시카고한국일보 회장	미디어 그룹을 설립해 청소년 문화교육, 마약예방 캠페인, 한국문화 확산에 앞장섰으며, 재미대한체육회·민주평통·세계한인방송협회·이산가족상봉추진위 등에서 활동하며 미주 한인사회 통합과 한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20	김원한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	루마니아한인회장,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월드옥타 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글학교 지원, 문화·체육·경제행사 주관, 동포 복지지원, 국내 복귀자 편의제공, 통일 관련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유럽 동포사회 결속과 교류 증진에 기여함.
21	김은희	뉴질랜드한인여성회 회장	15년간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회장으로서 한인 여성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 지원, 동포사회 및 지역사회 발전, 한국 전통문화 습득 및 홍보를 통해 우호적 한-뉴 관계 발전에 기여함.
22	김응화	김응화 무용연구소 원장	LA에 무용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전통문화예술을 미주류사회에 전파하고 차세대를 교육하는 데 앞장섰으며, 미주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의 역사와 예술문화를 융합한 공연을 선보여 지역사회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알리고 전파하는 데 기여함.
23	김일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사장	쿠바 한인회 창립 주도 및 한글교육·장학 지원을 통해 민족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 샌디에이고 한인회장으로서 참전용사 기념비와 한인회관 건립, ‘한인의 달’ 제정 등으로 한민족 위상을 높였으며, 시민권 교육, 복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동포사회 권익증진에 기여함.
24	김점봉	라페쉬일오삼 대표	세네갈 수산업 진출 한인을 지원하고, 한인 수산업 협회 창립, 명예 해양수산업 활동, 무연고 선원 묘지 돌봄, 한인회장 재임 중 동포 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 민주 평통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함.
25	김주미	한인상담생활소 소장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인생활상담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법률, 정신건강,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인 복지 향상과 사회 통합 증진에 기여함.
26	김진성	호주한인회총연합회 고문	호주 퀸즈랜드한인회 회장, 대전-브리즈번 자매도시 위원장, 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동포사회 위상 제고 및 차세대 리더 발굴·육성 등에 기여함.
27	김진학	발렌시아한인회 고문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의 보급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썼으며, 발렌시아에서 한인회장 33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16년 등 발렌시아 동포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구성원 정착 및 지위향상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28	김채화	다문화인연합회 회장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 복지·교육·범죄예방·환경보호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다문화인연합회 운영을 통해 안산 지역사회의 통합과 이주민 공동체의 안정, 연대와 포용의 문화 확산에 기여함.
29	김태자	한국음악재단 창립자	한국음악재단과 세종솔로이스츠,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를 창립해 젊은 음악인들의 세계무대 진출과 한국 음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재미한인의사회·한인커뮤니티재단 등에서 봉사하며 한인사회 발전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 위상 제고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30	김혜경	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한인회 회장	브라운슈바이크 한인회장으로서 전시회·체육대회·전통문화행사·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기획하고, 김치의 날·한류의 날·전통공연 등 한식과 한복, K-pop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한-독 문화교류 확대와 재독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31	김혜숙	재아한인 민속국악원 고문	아르헨티나에 정착 후 호산나합창단과 민속국악원을 통해 50년 넘게 한국 전통문화와 무용을 현지에 전파하며 다문화 행사·교육 활동에 헌신하고, 국악 교육을 자비로 이어온 문화 전도사로서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함.
32	남사랑	재일민단 도치기현 지방본부 상임고문	민단 지방본부 3기관장을 역임해 50년에 걸쳐 헌신적으로 재일동포 사회를 위해 봉사하였으며, 88올림픽 당시 100만엔을 기부하였고 도치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공헌함.
33	남양주 장학회	단체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문화관을 건립하고 상가 임대료와 회원 후원금으로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글학교, 유치원 등 1,138명에게 장학금과 기자재를 전달하는 등 동포 인재 양성에 기여함.
34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 명예회장	대한고려인협회를 창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려인 정체성 회복과 권익 신장, 청소년 역사 교육,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국내외 교류와 평화 메시지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지원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해 고려인 공동체 통합에 기여함.
35	노준환	필리핀한인총연합회 이사	필리핀 지역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동포 체육대회, 우호 행사, 모금 행사 등을 주도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및 필리핀 빈곤 가정 자녀 대상 장학 사업과 빈민촌 봉사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36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단체	개교 이래 50년간 한민족의 전통과 우수한 문화를 교육하는 뿌리교육을 실천하여 2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한편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민국과 한인 2세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37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단체	1909년 창립된 대한인국민회의 독립운동 역사와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보존, 역사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역사교육과 각종 행사를 통해 한인이민역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에 기여함.
38	레크링하우젠 한인회	단체	무용단·한글학교·체육활동 운영, 광복절 행사·문화공연·한식 홍보, 각종 국제행사와 지역 단체 협력을 통해 세대 간 정체성 교육, 문화교류 확대, 동포 간 단합과 국위 선양에 기여함.
39	류재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차기 회장	아이다호 한인회 회장과 세종한글학교 자원봉사 교사로서 드론 기반 STEM 교육과 과학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동포사회 행사를 기획하며 차세대 인재 양성과 한인사회의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
40	마르타 김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 회장	멕시코시티한인후손회 회장,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전문위원, 평통위원, 멕시코 한인후손회 연합회 회장으로, 한인 후손 권익증진, 한반도평화통일 기반 조성, 멕시코 동포사회 단합 등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1	말레이시아한 인회	단체	K-라운지 운영, 한국국제학교 설립 지원, 한류문화축제·자선바자·의료협약 등 교류와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동아리·지식강좌·입시설명회 등 교육사업과 계간지 『한말소리』 발간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 및 정체성 함양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42	문삼순	이르쿠츠크 한국문화센터 부회장	이르쿠츠크 비영리단체 한국문화센터 설립 후, 시베리아 지역에 지난 19년 이상 한국 전통 문화 전파에 노력해 왔으며, 한글학교 교장으로서 15년 한글 교육에 헌신하는 한편, 한국 문화 행사 개 최를 통해 한국 이미지 제고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3	박봉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회장	월남전 참전용사 유공자로서 하와이 해병전우회 회장, 하와이 한 인회장 등을 역임하며, 한인회관 건립 추진, 평화통일 홍보 활동, 차세대 리더 육성, 참전용사 예우,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 으로 하와이 한인사회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기여함.
44	박성만	위싱턴중학교 수학 교사	하와이 공립학교 수학 교사로 20년 넘게 저소득·한인 학생들을 우수 인재로 육성하고, 수학·한국어 교육과 멘토링, 강연 활동을 통해 한인의 자긍심 고취와 차세대 정체성 확립, 재외동포 교육 발전에 기여함.
45	박수진	시디시 트래블 대표	코로나19 시기 필리핀 원격지 동포 귀국을 위해 자비로 경비행기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전세기 운영 등으로 동포 안전에 힘썼으며, 국내 관광지 홍보 및 전세기 유치로 필리핀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 하는 등 동포사회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함.
46	박운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충청사무소 소장	충청한인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 유적 보존·기념·교육 활동과 후손 지원, 전국 유적지 조사 및 역사 연구 조직 설립을 통해 한 중 간 역사 공유와 동포 역사의식 고취, 차세대 역사교육 기반 마 련에 기여함.
47	박종영	쿠웨이트 태권도협회 감독	쿠웨이트 체육기관과 경찰대학, 태권도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며 한국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동포 안전과 단합에 기여 했으며,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선거관리, 평화통일 홍보 등으 로 한-쿠웨이트 간 문화 교류와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48	박태석	재일민단 도쿄 토시마지부 상임고문	민단 토시마지부 단장으로서 역사왜곡 대응, 무연금자 구제, 외국 인 참정권 촉구, 지자체 간 자매결연, 수해 의연금 모금, 문화교실 운영, 조직 운영 개선, 청장년 교류 활성화 등 재일동포 권익 보호 와 민단 조직 강화, 한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49	배원자	다름슈타트한인회 수석부회장	다름슈타트한인회 창립과 한글학교 설립, 유학생과의 연대, 다민족 축제 한국관 운영, 시민대학 한국어 강좌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일 현지 한인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결속력 강화는 물론, 한국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기여함.
50	백진혁	치타공한인회 회장	방글라데시 한인회 활동과 한인사회 안전·화합 지원, 스포츠 행 사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동포 정체성 강화와 현지 교류 확 대,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51	사단법인 해로	단체	파독 1세대의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며, 독일 사회복지 체계에 기 반한 전세대 모국어 돌봄, 건강·요양지원, 자원 봉사 활성화를 통 해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간 소통, 재독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함.
52	서동훈	청도한국인(상)회 래서시지회 명예회장	청도한국인(상)회 래서시지회에서 20여년간 한인 자녀를 위한 한글 학교 설립, 한국학교 설립지원, 한국투자기업 유치 및 애로사항 해 소 등 한국 이미지 제고와 권익 증진에 기여함.
53	서병인	비스코 명예회장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입지전적 인사로 치과재료생산기업 Bisco社 설립, 전세계 90개국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동포기업 인으로 동포사회에서 대외적인 직책을 맡아 활동하기보다는 배후 에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54	서봉석	뮌스터한인회 회장	뮌스터 한인회장과 여러 한인 단체 임원으로서 문화행사·보건의료 봉사·국제결혼여성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일 내 한인 사회의 위상 강화와 정체성 유지, 한국문화 확산 및 동포사회 통합에 기여함.
55	서승열	유럽한인총연합회 운영위원장	태권도 지도자로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고, 스페인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후배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으며, 스페인 내 한인 침술을 시작하여 후진 양성에 기여함.
56	손한평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고문	사업가로서 수평적 리더십을 실천하여 한국과 한국인들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땅그랑반튼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및 여러 한인단체의 주요임원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 발전과 주재국과의 우호증진 및 진정성 있는 협력에 이바지함
57	신동민	전 신한베트남은행 은행장	한국 금융의 국제화를 통하여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한인 거주 밀집 지역에 영업점을 개점하고 공과금 수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동포사회에 금융 편의를 향상시켰으며, 금융 정보 제공으로 투자 진출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함.
58	신용섭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	23년간 삼성물산 싱가포르지사장 및 동남아대표로 재직하며, 싱가포르 전경련·한인회·한국상공회의소·싱가폴 경총 등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며 한국-싱가폴 간 민간 외교 및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함.
59	신정아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교장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설립 당시 교사로 시작하여 9년간 봉직하였으며, 2016년부터 교장으로 재직하여 바르셀로나 지역 차세대 동포들의 한글 교육에 앞장서고 현지에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함.
60	신정의	재일민단 도쿄 가츠시카지부 상임고문	민단 카츠시카지부의 발전과 한국과 일본과의 민간교류에 힘썼으며 특히 카츠시카구 재일동포 장애자와 고령자의 무연금자에 대한 급부금 획득 운동에 기여함.
61	신현찬	미시간 한인봉사회 회장	디트로이트 한인회 재건과 태극마을 아파트 기금 조성, 동포 구제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위기 해결에 헌신하고, 희귀 음반·기기·역사 유산 기증과 한인문화회관 후원 등을 통해 교육·문화 발전과 차세대 지원에 기여함.
62	신호철	필리핀남부한인회 회장	필리핀 지역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필리핀 동포 약 3천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신속히 제공하는 등 동포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필리핀 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의료봉사와 기부를 통해 한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63	안영권	주식회사 꼬레앙골 대표이사	대사관 설립과 PKO 파병 지원, 초등학교·성당 건립, 광물자원 개발 및 국제 전시 수상, 수산 협력 및 태권도 보급, 사회봉사와 장학·구호 활동 등을 통해 한국과 앙골라 간 외교·경제·문화 교류 확대와 친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64	안용범	전 재일민단 도쿄본부 의장	청년회 결성부터 재일동포 인권옹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평창올림픽·재해구호·코로나 대응 등 재일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과 조직 결속에 헌신해왔으며, 민단 정상화 위원회 활동과 임시대회 추진을 주도해 조직 정상화를 이끄는 데 기여함.
65	양원준	아르헨티나 한인회 이민60주년기념행사위원장	아르헨티나에서 40여 년간 한인 청년 문화정체성 강화, K-컬처 확산, 장학·봉사활동, 중남미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변국 교류 등 다각적 활동을 통해 한류 기반 문화외교와 한인 공동체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66	오금석	3.1 유네스코 덴버지회 회장	3.1 운동 유엔유네스코등재기념재단 덴버 지부장 역임, 유관순 기억 재단 창립 등을 통해 오로라시 유관순의 날 제정 주도하는 등 한인사회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함.
67	오기정	커네티컷 한인회 상임이사	26년간 커네티컷 한인회와 세탁협회, 민주평통, 재외선거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코로나 구호, 장학·청소년·시니어 지원, 한인 비즈니스 권익 보호, 지역사회·주정부 협력,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한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
68	오미정	프라하한글학교 교장	20여 년간 체코 프라하 한글학교와 동포사회 발전에 헌신해오며 한글학교의 법적 기반 마련, 교육환경 개선, 학교 내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등으로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동포 결속에 기여함.
69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단체	복지·교육·문화·언론·재난 대응·현지 교류·정부 협력 등 다방면의 활동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 및 동포사회 단합에 기여함.
70	월드옥타 싱가포르지회	단체	스마트시티·전기차 등 전략산업 진출 지원,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인턴십·창업 프로그램 운영, 아세안·미주 지회와의 협력, 청년 해외취업 지원, 동포사회 봉사와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외연 확대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71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죽음준비, 가족간병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신기증을 통한 의학교육과 치매 의료연구에 기여하는 등 한인 시니어 복지증진에 앞장섰으며, 아프리카에 우물 625개를 비롯 학교 9개를 세워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인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72	유승완	말레이시아한국인학교 교장	한국인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과정 개편, 재정 자립화, 장학제도 신설, 한국국제학교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혁신하고,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수로서 16,000여 명의 학생을 양성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육 교류 확산에 기여함.
73	유진	재미얀마 한인회 회장	재미얀마한인회 회장으로서, 미얀마 지진 및 수해 등 재해 등 위기시 우리 국민과 미얀마인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기부 및 모금 활동과 피해 복구 지원에 앞장서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74	육원자	전 시카고한인회 이사장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복지·교육·문화·경제·여성단체 활동과 재정 상담을 통해 동포사회의 통합과 자립에 기여하고, 미주 동문회장·민주평통·여성재단 활동 등을 통해 한미 유대 강화와 재외동포 위상 제고에 기여함.
75	윤현재	한인사회봉사회 회장	새마을신문사 기자와 동포언론 활동을 시작으로 31년간 사랑의 양식 나누기 운동, 이민자·탈북자 지원,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 향우회 행사와 장애인 후원 등을 통해 캐나다 동포사회의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함.
76	이경석	코비미국정부조달협회 회장	29년간 1,500여 한인 및 한국 중소기업에 미국 연방조달 교육과 진출을 지원하고 수백 회의 세미나·포럼을 개최했으며, 정부기관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의 실질적 한미 경제 교류와 기업 간 연결에 기여함.
77	이경수	웰빙식품 대표	과테말라에서 한인회·민주평통·체육회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 화합과 안전 증진, 보육원·빈민촌·치안기관 대상 사회공헌과 자연재해 구호 및 경북 자문위원 활동 등을 지속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78	이경윤	동부자바 한인회 고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한국어 교육, 민간외교, 문화교류, 재난 대응, 공동체 조직 강화에 헌신하며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재외 동포사회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역사 기억 활동 등에 공헌함.
79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여 2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미국 지역 개최를 견인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등 미주 한인 상공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80	이계송	뷰티타임즈 발행인	월간 뷰티타임즈 잡지 33년 발행과 20년 뷰티엑스포 주최함으로써 미국에서 재미동포 사업가들이 흑인뷰티시장의 생산-도매-소매 유통망을 장악하는 데 기여함.
81	이광연	알래스카 한인 노인회 부회장	알래스카 한인 노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저소득 노인들의 정착 지원, 병원·주거 행정 절차 안내, 코로나 시기 마스크·검사키트 배포와 차량 제공, 장례 지원 등 실질적 돌봄을 수행하여 지역 한인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82	이규백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수석부회장	세계 우수 브랜드 대상 봉제 영업 및 생산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류 수출 증대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해왔으며, 특히 2017년부터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의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의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함.
83	이명희	재일민단 도치기현 지방본부 고문	50여 년간 민단 간부로서 우리말대회 추진, 지부 재정 기여, 단원 연대 강화, 험한 시위 대응, 교과서 왜곡 시위 주도, 지방참정권 운동 및 각종 한일 기념행사 참여 등 민단 조직 발전과 민족 정체성 고취에 기여함.
84	이보상	히어앤나우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대표	장애인 복지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주거지원, 정보 제공, 번역자료 배포, 유튜브 운영 등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가족 모임과 캐나다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인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85	이상조	재일민단 교토본부 고문	40여년 간 재일민단교토본부, 교토국제학원, 교토한국상공회 등 민족단체 지원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포 소상공인 지원 및 차세대 육성을 통해 한국 이미지 제고 및 한인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
86	이양근	세계한인무역협회 상해지회 명예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상해지회장과 조선족단체 대표로서 우리 중소기업 지원, 문화·교육 후원, 민족문화 보존 등을 통해 한중 경제인 교류 확대 및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함.
87	이영규	미래전략연구재단 회장	뉴욕한인경제인협회 17대 회장을 맡아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뉴욕시가 코리아타운을 공식 지정하고, 맨해튼 브로드웨이 & 32스트릿에 Korea Way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한인 위상 강화 및 차세대 정체성 함양 등에 기여함.
88	이영준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부회장	버밍햄한인회장과 앨라배마한인회연합회장,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한인조직 기반을 다지고 명절행사, 복지 세미나, 체육대회, 청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인사회의 결속력 강화와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함.
89	이인자	어거스타한인회 부회장	미국 어거스타와 아칸소 일대에서 시민권 수속, 병원 통역, 간병, 장례 지원 등 다양한 실무 지원을 꾸준히 수행했으며, 한인회 봉사센터장으로서 노인·중병자·수감자 등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한인 복지 향상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90	이재윤	중국 한국인회 화남연합회 회장	한글학교 교장과 한인회 활동을 하면서 동포와 해주시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동포의 단합과 현지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앞장서고, 중국 한국인회 화남연합회 회장을 맡아 우리 동포들의 정착과 권익 향상에 기여함.
91	이정태	케이비에프디 제작부장	하와이 독립운동사 등 대한민국과 하와이를 잇는 다수의 다큐멘터 리 제작과 독립운동사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 초기 이민자 묘비 디지털화 등을 기획하여 하와이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함.
92	이정형	재일민단 야마나시현 지방본부 단장	야마나시 한인귀금속협회와 민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한글교육, 순 회영사 유치, 코리아축제 정례화, 한일문화·경제교류 확대, 충청 북도와의 MOU 체결 주도 등 재일동포 사회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함.
93	이진희	전 재파라과이한인회 사무총장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비롯한 한민족 사회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강 화에 헌신하였으며 매년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주재국 내 한 국 이미지 제고 및 동포사회 화합에 기여함.
94	이창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	각종 애국행사 개최, 체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스쿨 운영, 아시안게임 지원, 교양강좌 및 공연 기획, 정치· 스포츠 외교활동 및 한인 단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민족 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
95	이혜원	유타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유타 한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으로서 한미 경제·문화 교류를 위 한 MOU 체결, 스타트업 포럼, 한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네트워크와 문화 위상 제고에 앞장섰으며 차세대 리더십 육 성 등 주류사회와의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함.
96	임병옥	전 중화민국대만한인회 회장	중화민국한인회장으로 재임하며 ‘한인100년사’ 발간, 독립유공 자 후손 발굴, 조명하 의사 기념사업, 동포 화합행사 주최, 소외계 층 지원, 교육기관 운영과 장학사업, 한식문화 홍보, 경제교류 촉 진 등 동포사회 역사 보존과 권익 향상 등에 기여함.
97	장원	재 멕시코 제17대 한인회 회장	멕시코 한인회장 및 중남미 지역 한인단체 주요 직책을 맡아 문화 행사 개최, 교육·복지 지원, 직항노선 재개, 경제협력, 평화통일 공공외교, 무역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민족 사회의 정체성 강화와 양국 간 교류 증진에 기여함.
98	장은명	홍콩한인회 고문	홍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한식 세계화와 한국문화 홍보에 앞장 섰고, 홍콩한인여성회 창립과 한인회장 역임을 통해 동포사회 통 합을 이끌었으며,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으로서 장애학생 교육 확대, 장학제도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함.
99	장호성	국기원 해외파견 태권도 사범	튀니지에서 국기원 파견 사범으로 태권도 선수 양성, 군경 교육, 교육기관 강의, 대회 및 세미나 운영, 장애인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태권도 보급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함.
100	故 장철우	전 뉴욕한인교회 원로목사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황 기환 지사 유해 봉환을 주도하였으며, 정부 후원 뉴욕독립기념전 시관의 초대 관장으로 위촉되어 재외한인의 정체성과 애국정신 함 양에 기여함.
101	재일민단 히로시마현지 방본부	단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건립과 평화공원 이전, 차세대 민족교 육 및 장학사업, 한일문화교류와 지역축제 참여, 재해 대응과 법률 상담, 영주권 지원과 모국 방문단 운영, 각종 기부 활동 등을 통해 동포 권익 증진과 한일 간 신뢰 형성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102	재일한국청년 상공인연합회	단체	자연재해 자원봉사, 한국 및 일본 내 보육원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어 대회 개최,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고국 방문 등을 통해 한일 우호 증진과 민족 정체성 강화에 기여함.
103	정건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이사장	싱가포르 한인회장으로서 동포 평생교육, 병역제도 개선 청원,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으로서 학습공간 증축과 장학금 기부 등 차세대 동포 교육환경 개선 및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함.
104	정희천	중국 한국상회 한국인회 화동연합회 명예회장	상해한국학교 초대 재단 이사과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상해에 한국 학교 설립과 발전에 이바지 및 재외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통과에 기여함.
105	제니 그롭스	포트워스 한인회 이사회 이사	포트워스 한인여성회와 한인회장을 역임하며 여성·노인·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문화 프로그램,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사회 봉사, 한인회관 기금 마련과 다민족 교류 활동 등을 주도해 한인의 위상 제고와 커뮤니티 통합, 차세대 리더 육성 등에 기여함.
106	조경구	북부플로리다한인회 회장	북부플로리다한인회와 연합회 회장으로서 문화행사·교육교류·순회영사 유치·정치력 신장 활동 등을 주도하며 한인사회의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 미주 한인 권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함.
107	조성현	골드코스트 한글학당 이사장	호주 시드니와 골드코스트에 한글학교를 설립해 한인 2세와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보급에 헌신했으며, 2012년 퀸즐랜드 한글학교 협의회를 창립해 교재 통일, 교사 양성, 후원 유치, 교수법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전체 한글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
108	조언빈	중화민국대만한인회 명예회장	대만한교협회 회장, 한인 경제인연합회 회장, 대만한인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회 부이사장과 재향군인회 대만지회장 및 민주평통 해외상임위원을 겸임하여 한인사회의 안정적 기반 조성 및 화합 발전, 한인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함.
109	조우현	강음 한국상회 한국인회 회장	중국학교 및 지역사회에 13년간 성금을 기부하고, 한국학교에 5년간 장학금을 기탁하여 한국 이미지 제고와 재외동포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
110	조창희	마인즈한인회 명예회장	파독광부 출신으로 마인즈한인회 창립과 한글학교 운영, 유학생 지원, 문화홍보, 재독한인단체 및 민주평통 활동 등을 통해 독일 내 한인사회의 통합과 정체성 강화, 한독 관계 증진에 기여함.
111	주옥자	대한노인회 베트남지부 지부장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호치민 여성 CEO 회장과 대한노인회 베트남 지회장, 한인회 부회장, 부인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인 복지 향상, 한인사회 정착, 여성 리더십 증진, 한-베트남 교류 확대 등에 기여함.
112	차은지	폴란드 브로츠와프 한글학교 법인 대표	한글학교의 행정과 재정 기반 안정을 위해 법인화를 통해 공익단체 자격을 확보하고 기부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과 현지 사회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함.
113	창발	단체	미국 내 한인 청년들의 진로 탐색, 정착 지원, IT 교육, 멘토링, 창업 생태계 조성, 커뮤니티 유대 강화 등 다각적 활동을 통해 차세대 한인 리더 육성과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114	채예진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장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등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고려인 관련 콘텐츠 제작과 문화교류에 앞장섰고, 고려일보 특과원과 대한고려인협회 부회장으로서 청소년 역사교육, 국내 정착지원,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고려인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함.
115	최병호	한국식품 대표	한국 전통식품의 제조기술 개발과 유럽시장 공급을 통해 한식 세계화에 기여하고,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각종 기념행사와 동포 화합 활동을 주도했으며,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 대표로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럽 내 한국문화 보급 등에 기여함.
116	최상민	이에스디 대표이사	32년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한인사회 발전과 차세대 육성에 헌신하고, 한상 네트워크 강화, 한국기업 진출 지원, 교육·복지·재난 구호 활동 및 대규모 한인축제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과 재외동포 위상 제고에 기여함.
117	최성희	홍콩한인체육회 감독	홍콩한인테니스회 감독과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체육 교류와 민간 외교, 여성 리더 육성, 코로나19·산불 피해 지원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동포사회의 자긍심 고취와 연대 강화에 기여함.
118	최시영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부회장	버밍햄한인회장과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팬데믹 시기 한인 복지지원, 문화행사 주최, 인권 캠페인, 장학사업, 뷰티업계 네트워크 자문, 청년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한인사회 결속과 권익 신장, 차세대 육성에 기여함.
119	최애영	마카오 캐나다 국제학교 커리큘럼 코디네이터	1999년부터 26년간 교육에 헌신하며 동포와 현지 사회에서 교육, 한국 문화 전파, 동포 리더십, 봉사 등 다방면에 기여하였고, 특히 중국과 마카오에서 활동하며 학생 교육과 동포 화합, 학문적 발전에도 공헌함.
120	최완	21세기한민족문화포럼 대표이사	비스바덴한인회와 한글학교 설립, 재독한인총연합회 및 외국인의회 활동을 통해 한인 공동체 형성과 한국인 위상 강화를 이끌었으며, 전통문화 공연, 차세대 정체성 교육, 한국문화탐방 등을 추진함으로써 한독 간 민간외교와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
121	최종열	중국 단동한국인상회 고문	단동한국인(상)회의 임원 및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단동한국동포안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동포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기여하고 한중우호 증진 및 단동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
122	최한기	앵커리지한인회 재정위원회 부회장	38년간 앵커리지 한인회와 각종 단체에서 회계·교육·비즈니스·통역 봉사에 헌신하고, 세무 자문과 민주평통 활동을 통해 알래스카 한인사회의 재정 안정, 공동체 발전, 평화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함.
123	케이씨더블유 에이 패밀리 앤드소셜서비 스	단체	법률, 가정폭력, 고용, 시니어·청소년 지원 등 다문화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팬데믹 대응·디지털 교육·반인종주의 활동 등을 통해 한인 이민자의 자립과 권익 향상, 지역사회 통합 등에 기여함.
124	키토한글학교	단체	1980년 개교 이후 에콰도르의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글·역사·문화 교육과 독도의 날, 역사캠프 등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며 2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문화 교육, 대사관·한인회 협력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25	필리핀한인총 연합회	단체	필리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한비문화축제, 한인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 자연재해 구호활동, 안전세미나 등을 통해 필리핀 지역한인회 및 직능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고 필리핀 동포사회의 안전과 발전 및 한-필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공적
126	한 아리나	에스토니아 한국문화협회 회장	1993년 에스토니아 소수민족협회와 1995년 고려인협회를 설립하고, 19년간 고려인협회장을 맡아 이주 고려인의 정착 지원 및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함.
127	한마음 나눔회	단체	광 내 무연고자·노숙인·고령자 등 소외 동포를 대상으로 행정·의료·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인간 존엄 회복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모범적 민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128	한재은	재일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	54년 간 재일동포의 권익과 인권 옹호, 민족적 정체성, 한일 간 가교로서 우호 친선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민단 도쿄본부와 중앙본부 감찰위원장을 역임하며 조직 기반 강화에 기여함.
129	허근일	재일민단 오사카본부 고문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재 기부, 우리말 교실과 차세대 연수, 한일우호 행사와 협한 대응 심포지엄, 조직 감사체계 정비 및 코로나 구호활동 등을 통해 민단 조직 활성화, 정체성 확립, 한일 관계 개선, 지속 가능한 민단 발전에 기여함.
130	현종호	브로텍스 그룹 대표	파나마한인회 한인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글학교 운영 재개, 팬데믹 기간 봉사,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 미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파나마 한인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함.
131	홍성수	중국 영구한국인상회 회장	영구한국인(상)회 회장과 중국한국인회 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등으로서 재중동포 안전 지원, 기부 및 장학사업,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참여, 한글학교 설립과 후원, 다문화행사와 문화교류 주관 등을 통해 한인사회 통합과 차세대 교육 등에 기여함.
132	후안 이그나시오 두란 공	멕시코 유카탄 한인후손협회 회장	유카탄한인후손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날, 전통문화 행사, 한글학교 운영, 장학사업, 독립운동 조명, 한국전통공연 유치, 그리팅맨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한 문화·교육·기념행사를 통해 한인후손의 정체성 함양과 멕시코 내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함.

/끝/